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남) 안성현 조대회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식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김성덕
노영진
(여) 이미경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협동 목사/ 문신현

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황금란 정영임 임혜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기도원 교역자/ 김영식

지교회 교역자/ 문대규 정철수 이행업 박홍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환준 김혜영 차진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명호, 한진범, 김은주, 김종훈,
폴 무사파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시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즈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영연, 온두라스 에스테인 할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핀: 조찬형, 성 숙,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골: 발자릭 푸레브, 안흐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이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윌슨 존 길, 타리크 지아
중 동: 보나 시투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빈성건 이동립 최중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이기세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준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왕국 김진홍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중태 김용석 정택수 조휴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봉완 홍영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대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승 황병현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혁수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규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렬 손영락 윤부열
박중웅 송영현 이성의 정명호 정용필

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이교순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중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영욱 배철호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채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중웅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들 성가대: 서승원 膩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50장 1절	다 같 이
* 성서교독 21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340장	다 같 이
기 도	이성숙 목사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5:19~21	사 회 자
찬 양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3차 영훈육(3)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44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박광현 목사

대표기도	장정미 전도사
성경봉독	옴기 1:1~7/ 사회자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졸업자 대표
설교	옴기 강해(1)/이수진 목사(당회장 직무대행)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문신현 목사

대표기도	곽윤진 전도사
성경봉독	골로새서 3:1~2/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 황금란 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박형렬 목사

대표기도	조혁희 목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3:7~13/ 사회자
찬양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25)-빌라델비아 교회①/ 당회장님

2-8회 17차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님 원장
기간/ 2월 14일(월) ~ 3월 6일(주일)
주제/ 2022년 기도제목을 위해서

새벽 예배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자문에 협조하기 위하여 추후 공지 시 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이미경 목사	최종태 장로
주일 저녁예배	임학영 목사	최성숙 전도사
수요 예배	이석규 목사	나혜숙 권사
금요 철야예배	조수열 목사	강영식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3차 영혼육 (2)

본 문 : 요한일서 2:24~25, 갈라디아서 5:19~21

지난 시간에는 육과 관련된 용어 중에 몸, 몸의 행실, 육신, 육신의 일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은 육체와 육체의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남녀를 불문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먹으면 예뻐지고 날씬해진다는 음식들로부터 각종 기능성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용품들이 무수하고 성형수술도 아주 보편적인 추세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성형수술로 아름답게 바뀐 사람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주를 믿지 않고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육적으로 아무리 달라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삶의 가치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여전히 썩어질 육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로써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데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므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장차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게 됩니다. 마음을 진리로 이룬 만큼 외면적인 아름다움도 보너스로 따라오게 되지요.

전도서 8장 1절에 “...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영혼이 잘되는 만큼 사나운 인상이 선하고 고운 인상으로 바뀌며, 어둡고 세상에 찌들었던 얼굴도 영적인 빛이 임하여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따져 보면 평범한 얼굴이라도 ‘그 사람 참 예쁘다, 아름답다’ 하고 호감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투자요, 유익된 일이지요.

1. 모든 죄성을 버려야 성결될 수 있어

지난 시간에 설명한 용어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몸”은 아담의 범죄 후 진리의 지식이 빠져 나간 사람의 형체이며, “몸의 행실”은 몸 안에 담긴 비진리를 좇아 나오는 행실입니다.

육신은 진리가 빠져 나간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이며, 이러한 “육신”을 낱알이 나누어서 말하면 “육신의 일”입니다. 몸과 결합된 죄성들 곧 미움, 시기, 질투, 음욕, 욕심, 교만, 혈기 등 이런 하나하나가 “육신의 일”이며 이것들을 총칭해서 “육신”이라 합니다.

육신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이 행함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서만 범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가진 보석을 보고 실제로 도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갖고 싶다, 주인 몰래 가져오고 싶다' 생각하면서 탐심을 품었다면 곧 마음으로 범죄하여 육신의 일을 행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으로 범죄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원수 마귀도 육의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에 육신의 일에 대해서도 송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5:28)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범죄한다는 것은 이미 행함으로 나올 바탕을 마련한 것이며, 마음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범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은 바로 육신의 일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우리가 성결되고 거룩해지려면 육신의 일을 버림으로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성 자체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아담 이후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들과 자기 스스로 받아들인 죄의 성질들이 사람에게 속속들이 배어 있어서, 이러한 죄성들을 뽑아낸다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불같이 기도하며, 죄성을 벗어 버리고자 생명 다해 노력할 때에 성령님이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마침내 마음에서 죄성들이 벗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등을 드릴 때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느낄 때 쉽고 신속하게 죄성들을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2. 육체와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이 행함으로 드러난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육신의 일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때렸다면 이렇게 폭력으로 나온 행함이 육체의 일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은 육신의 일이지만 실제로 훔쳤다면 이것은 육체의 일이지요.

육체의 일을 총칭하는 단어는 ‘육체’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 중 어느 쪽이 더 죄질이 중할까요? 마음에 있는 죄성이 현저히 드러난 육체의 일

이 더 중하지요. 따라서 성경 곳곳에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도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창 6:3, 고전 6:9~10, 갈 5:19~21).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아직 육신이 남아 있고 육신의 일을 범했다 할지라도, 이를 버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도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실 수가 없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사라지다가 결국에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지만, 행함으로 범죄하는 것은 자기 의지 가운데 능히 절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들어서 ‘저걸 슬쩍 가져갈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안 돼’ 하고 스스로 절제시키면 되지요. 화가 나서 때리려고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얼른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절제하지 않고 계속 육체의 일을 범해 나간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짐짓 범죄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초신자라면 육체의 일을 단번에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 번에서 아홉 번, 여덟 번, 이렇게 줄여 나가서 결국에는 육체의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더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육체의 일은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짐짓 육체의 일을 행해 나가면 결국 이것이 큰 죄의 담으로 쌓여서 회개하고자 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것 같고, 구원의 확신조차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1) 육적인 음행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이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며 장래를 약속했다 해도 결과를 보면 번개하여 갈라서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부정을 행하여 다른 사람을 취한다면 이 또한 음행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서 여러 가지 음행들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묘사하며 미화시키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불법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뜻하고 절절하게 묘사하여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입력

되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재미있다고 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만큼 죄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지며 무감각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악영향까지 사람들의 음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음란물을 통해서 음행을 유발하는 자료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고 더구나 더러운 것과 호색적인 것들까지도 더 쉽게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음행을 경고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했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하다 해도 주를 믿는 우리는 결코 악한 세대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2) 영적인 음행

그런데 사람 사이의 육적인 음행 외에도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를 믿는다” 하면서 점을 본다거나 부적을 소유하는 등 사술을 취하는 것을 말하지요(고전 10:21). 이는 곧 악한 영을 섬기며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병이 들자 이방신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신의 병이 나올 것인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히 서운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셨고, 왕에게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요. 그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병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귀신을 의지하는 행함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며 이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와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심히 마지막이 가까운 시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녀들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사람들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정녕 죄를 벗어 버리고자 간구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주시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신속하게 성결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힘있는 영적 장수들로 나와 마지막 때를 이루는 역사 속에 큰 사명을 감당하며 장차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과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읽을 말씀 / 요한복음 19:32~36

외울 말씀 / 베드로후서 1:4

참고 말씀 / 요한복음 1:14

교육 내용 /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와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섭리를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베푸신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인류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순간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 이후로 가장 감동적이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섭리를 알고 마음 중심으로 믿을 때 가난이나 질병, 그 외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섭리 중에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와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섭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날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이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크게 여기는 거룩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방치해 둘 수 없었지요.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총독의 허락이 떨어지자 로마 군병들은 먼저 좌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빨리 숨을 거두도록 다리를 꺾어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결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도록 친히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양을 먹되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하셨지요(민 9:12 ; 출 12:46). 여기서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양이 사람에게 젓과 고기는 물론 털과 가죽까지 다 내어주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빌 2:6~7). 그리고 아무 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지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기사와 표적을 베풀며 포로 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병든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한 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틈만 나면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선만 행하셨는데도 유대인들에게 온갖 핍박과 멸시 천대를 받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를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같은 악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3.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섭리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하였고, 마태복음 8장 24절에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하였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배고픔과 고통을 느끼겠느냐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뼈와 살이 있는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드시고 주무셨으며, 때로는 슬픔도 느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 피와 물을 쏟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므로 자녀들 역시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 1:16),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선과 진리만 행하시고 가르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모든 죄악을 벗고 거룩한 행실과 마음을 가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연약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핑계 대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참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피와 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원죄, 자범죄가 없으므로 흘리신 피와 물은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의 피와 물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우리의 물과 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처럼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참 생명을 얻어 부활할 수 있으며 영생할 수 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은 영생수로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쳐 그대로 행하는 만큼 죄악을 벗고 마음을 진리로 채워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참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이 은혜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섭리는 무엇일까요?

- ① 예수님께서 ()으로 오신 증거이다.
- ②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에 참여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 ③ 참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의 피와 물이라는 증거이다.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라틴어로 '슬픔의 길'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 걸으시던 약 800m 되는 길이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70-8240-2075)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56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예배는 없습니다.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치료하는 여호와」가 스웨덴어 종이책으로 발간되었고, 「나의 삶 나의 신앙1」이 에스토니아어로, 「십자가의 도」가 우크라이나어로, 「참된 복을 좇는 자」가 인도네시아어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간다 루간다어로, 「깨어라 이스라엘」이 포르투갈어로, 「나의 삶 나의 신앙2」가 포르투갈어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한글(962호), 불어(139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정기 원로회가 오늘 저녁예배 후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 제2회 가족찬양대회를 개최합니다.
 - ※ 행사일시: 5월 15일(주일) 대예배 후
 - ※ 참가자격: 온가족 복음화된 가정(지교회 포함, 2인 이상)
 - ※ 시상: 대상, 금상, 은상, 인기상 각 1팀(상금, 상패 수여)
 - ※ 예선 서류접수 및 기간: 교회 홈페이지, 2월 27일(주일) ~ 3월 13일(주일)
 - ※ 예선 심사 후 영상접수: 3월 18일(금) ~ 3월 29일(화)
 -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거나 기획실(☎ 818~7234) 또는 예능위원회(☎ 818~720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조)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도 소식

전진수 형제(1청년)/ 「2022년 레슬링 아시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주니어 국가대표 자유형 70kg급 1위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은지 자매(3청년/ 14교구, 2-2남 김덕환 성도의 자녀)

※ 2월 26일(토)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길 46

「라루체 5층 그레이스홀」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해외 지교회(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 2022학년도 연합성결신학교 신학생 모집 •

1. 모집기간 : 2022년 2월 21(월) ~ 2월 28일(월)까지
2. 원서교부 : 신학교 교무처(전자 발송가능)
3. 원서접수 : 전자 접수(s8225237@hanmail.net)
4. 학과 및 응시자격

학 과	수업 연한	응시 자격	주요 대상	학습 형태
목회학과	4년	고졸이상 학력과 세례 받은 자로서 주의 종을 사모하는 자.	직분자 및 믿음 있는 일꾼	현장수업 및 인터넷 수강
선교학과	3년	고졸이상 학력과 세례 받은 자로서 해외 선교의 비전을 가진 자.	해외선교에 비전이 있는 일꾼	현장수업 및 인터넷 수강
성서학과	2년	세례 받은 자로서 말씀무장을 통해 능력있는 일꾼됨을 사모하는 성도.	국내 및 해외 모든 성도	인터넷 수강 및 필요시 현장수업

5. 학과별 강의 운영

학 과	과목數 (16주)	인터넷강의 과목수(학기)	현장 강의	강의 형태
목회학과	7	4	월,화,목 오전(10:00~11:30) 신학교에서 수강. 필요에 따라 오후에도 강의 진행.	월,화,목 주 3일 오전 10:00 ~ 11:30 신학교에서 강의 진행/ 오후 인터넷으로 설교 말씀 듣고 정리하여 제출.
선교학과	5	4	월,화,목 중 1일 오전(10:00~11:30)과목 신학교에서 수강	주 4편 인터넷으로 설교말씀 듣고 말씀 정리하여 제출.
성서학과	4	4	특강 및 필요시	주 4편 인터넷으로 설교말씀 듣고 말씀 정리하여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2)822-5237, 523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2/20 일

- 00:00 - '믿음의 분량 1' 이재록 목사
- 05: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5' 이수진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47' 이재록 목사
- 18:30 -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김상희 목사

2/21 월

- 01:00 - '금 그릇 2'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48' 이재록 목사
- 08:00 - '3차 영혼육 4' 이재록 목사
- 10:20 - '축복 6' 이재록 목사
- 13:00 - '육체의 결여 6' 이재록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122' 이재록 목사

2/22 화

- 01:00 - '그리스도 예수의 선행 일꾼 2'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49' 이재록 목사
- 08:00 - '3차 영혼육 5' 이재록 목사
- 10:20 - '축복 7' 이재록 목사
- 14:00 - '믿음의 분량 2' 이재록 목사
- 15:30 - '지옥 13' 이재록 목사
- 18: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6'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공과 40

2/23 수

- 00:00 - '믿음의 분량 4' 이재록 목사
- 01:00 - '3차 영혼육 2'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요한계시록 강해 23'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6:00 - '천국 45' 이재록 목사
- 13:00 - '육체의 결여 8' 이재록 목사
- 15:30 - '지옥 14'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50'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127' 이재록 목사

2/24 목

- 01:00 - '영적 예배'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51' 이재록 목사
- 08:00 - '3차 영혼육 7' 이재록 목사
- 10:20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 이재록 목사
- 13:00 - '육체의 결여 9' 이재록 목사
- 15:00 - 영적인 존재들 12
- 15:30 - '지옥 15' 이재록 목사
- 19:40 - '감사하는 삶' 이수진 목사

2/25 금

- 08:00 - '3차 영혼육 8'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46' 이재록 목사
- 14:00 - '믿음의 분량 5' 이재록 목사
- 15:00 - 영적인 존재들 13
- 17:00 - '창세기 강해 52' 이재록 목사
- 20:40 - 패루 연합대성회 1

2/26 토

- 07:05 - '창세기 강해 53' 이재록 목사
- 10:00 - '우리가 바라볼 것'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47' 이재록 목사
- 16:00 - 영적인 존재들 6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824-7107 / webmaster@gcnetv.org)

✦ 유튜브 GCN방송 채널 및 KT olleh tv 882번 (HD채널, 별도 편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위성 A/S 문의 : 1577-2073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한국어)41번(영어)42번(불어)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oreaSat5 위성방송,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일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e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etv.org

- Feb. 20(Sun.)

(1 Corinthians 14:33) “For God is not a God of confusion but of peace, as in all the churches of the saints.”

- Feb. 21(Mon.)

(1 Corinthians 15:10)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ward me did not prove vain; but I labored even more than all of them,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with me.”

- Feb. 22(Tue.)

(1 Corinthians 15:19) “If we have hoped in Christ in this life only, we are of all men most to be pitied.”

- Feb. 23(Wed.)

(1 Corinthians 15:20)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are asleep.”

- Feb. 24(Thu.)

(1 Corinthians 15:21) “For since by a man came death, by a man also came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 Feb. 25(Fri.)

(1 Corinthians 15:31) “I affirm, brethren, by the boasting in you which I have in Christ Jesus our Lord, I die daily.”

- Feb. 26(Sat.)

(1 Corinthians 15:41) “There is one glory of the sun, and another glory of the moon, and another glory of the stars; for star differs from star in glory.”

금주의 성경구절

2월 20일(주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고전 14:33)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2월 21일(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고전 15:10)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2월 22일(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고전 15:19)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월 23일(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고전 15:20)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월 24일(목)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고전 15:21)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월 25일(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고전 15:31)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2월 26일(토)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고전 15:41)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육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아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년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임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임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임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라/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픔이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세살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영약/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계명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앙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자혜의 샘/ 장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다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자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갈뚝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감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2월 추천도서



하나님께로 가는

순전하긴 정직한 이야기



URIM BOOKS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여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회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심계명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위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8